



제7회 청소년 체커톤 대회



2025. 4. 14. - 11. 15.



장려상

불고기 팀

▶ 김서희, 김시은, 손채영, 이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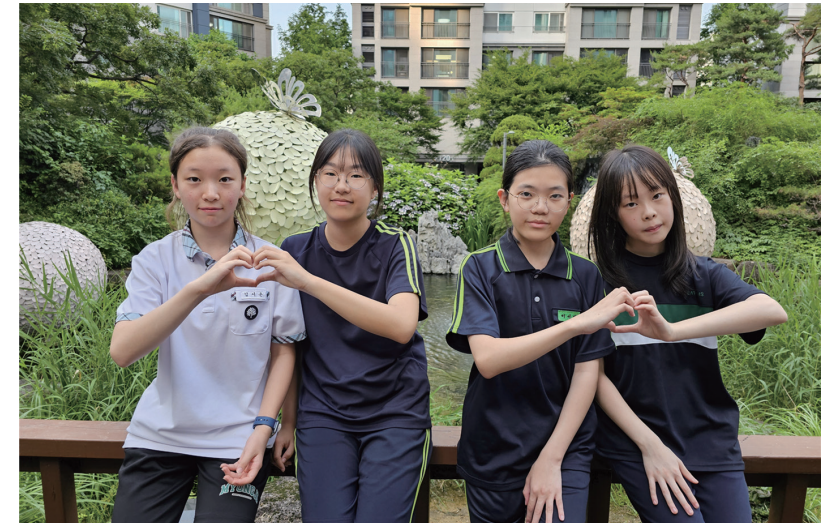


리포트

텀블러를 사용하면
환경에 도움이 될까?

웹툰

진짜 친환경은 몇 번부터?
- 텀블러, 알고 쓰자!



각오한마디

안녕하세요!

저희는 불처럼 팡팡 튀는 아이디어, 고마움을 아는 팀워크,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도전하는 열정을 가진 불고기 팀입니다!

불처럼 뜨거운 집중력과 에너지를 모아
“텀블러를 사용하면 정말 환경에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을 파헤치고,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믿고 있는 내용을
직접 조사하고, 실험하며, 팩트체크할 예정입니다.

창의력, 협동심, 열정을 듬뿍 담아
불고기처럼 맛있고 풍성한 팀워크로
알차고 유익한 결과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불고기 팀, 뜨겁게 응원해주세요!

팩트체크 리포트

텀블러를 사용하면 환경에 도움이 될까?

팩트체크 계획 수립하기

🎧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텀블러는 친환경이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텀블러를 쓰는 것만으로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뉴스를 읽고 조사해보니, 텀블러를 만들 때도 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사용되고, 정해진 횟수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환경에 더 나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 정말로 환경에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자료를 찾고, 실험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조사해 보며 이 말이 진짜 사실인지, 아니면 오해인지 직접 팩트체크 해보기로 했습니다.

☰ 팩트체크 방법에 대한 계획

1. 무슨 내용을 찾을 계획인가요?

텀블러를 만들 때 어떤 자원과 에너지가 사용되는지
텀블러를 몇 번 이상 써야 종이컵보다 환경에 더 이로운지
설거지할 때 드는 물과 전기도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사람들이 텀블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인식도 조사)

2. 어떤 형태의 자료를 찾을 생각인가요?

환경 관련 뉴스 기사, 환경부 공식 자료, 에코 생활 책

텀블러와 일회용컵 비교한 보고서나 인포그래픽 자료

설문조사 결과 (친구, 선생님, 가족 등)

환경 전문가의 인터뷰나 의견 인용 (직접 또는 영상·기사 참고)

3. 어떤 방법으로 팩트체크 할 계획인가요?

텀블러와 일회용컵의 제작 과정, 사용 횟수, 탄소배출량 등을 비교 정리

사람들이 텀블러가 친환경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실시

텀블러를 실제로 며칠 동안 사용하고 설거지하며 관찰

환경 관련 전문가의 인터뷰나 코멘트를 참고해서 조사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팩트의 신뢰도를 높일 예정

모든 결과를 표, 그래프, 시각자료로 정리해 “텀블러 사용이 정말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팩트체크 결론을 도출

팩트체크 해보기

① 찾아보기

물어보기

직접해보기

반론의견

뉴스 기사에 대한 근거 조사

이유민, “온실가스가 왜 친환경 텀블러에서 나와?”, KBS 뉴스, 2019년 11월 29일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333855>

KBS는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함께 텀블러·플라스틱 컵·종이컵에 대한 전과정평가(LCA)를

시행했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텀블러(300 mL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671 g CO₂ eq

플라스틱 컵: 13분의 1 수준, 종이컵: 24분의 1 수준

• 비교 결과

하루 1잔 소비 시 플라스틱 컵은 2주 뒤, 종이컵은 1개월 후 누적 배출이 텀블러보다 많아짐
2년 사용 기준: 플라스틱 컵 대비 33배, 종이컵 대비 최대 18~21배 이상 온실가스 저감

• 팩트체크

연구소는 한국 환경부의 탄소성적표지 지침 및 ISO 14040/44 등 국제 표준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며 전과정평가(LCA)의 적용 범위와 계산 기준(소재·제조·세척·폐기)을 함께 명시하며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안영준, “텀블러, 환경 보호 효과 누리려면?... 하나의 텀블러 오랫동안 사용해야”, 데일리환경, 2023년 12월 24일 <https://www.dailyt.co.kr/newsView/dlt202312220004>

요약 내용

이 뉴스는 “텀블러가 친환경이 되려면 오래 써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에 따르면 텀블러는 생산·폐기 과정에서 일회용 컵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결국 환경에 더 이롭다. 특히 텀블러 재질마다 ‘환경을 이롭게 바꾸는 데 필요한 최소 사용 횟수’가 존재하며, 플라스틱은 17회 이상, 세라믹은 39회 이상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근거

1. 주장: 텀블러는 종이컵보다 24배, 플라스틱컵보다 13배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근거: 이 수치는 2019년 KBS와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공동 수행한 전과정평가(LCA) 실험에서 나왔다. 실험은 300ml 텀블러와 일회용 컵들의 제조-사용-세척-폐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계산해 비교한 것이다. 공신력 있는 방송사(KBS)와 LCA 전문가 기관이 함께 수행한 실험이라 신뢰할 수 있다.

2. 주장: 텀블러는 재질마다 최소 사용 횟수를 넘어야 친환경이다.

근거: 이 주장은 미국의 환경 분석기관 ILEE와 CIRAIG(캐나다 LCA 전문연구소) 등에서 발표한 연구들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CIRAIG는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220회 이상 사용해야 플라스틱 컵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진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텀블러 재질별로 환경 전환점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국제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다.

※ 스테인리스 텀블러의 최소 사용 횟수가 다른 재질보다 훨씬 높은 이유는 재료의 생산 과정과 수명 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차이 때문입니다.

왜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220회 이상 사용해야 할까?

① 재료 생산 과정의 에너지 소모

스테인리스강은 철, 크롬, 니켈 등을 고온에서 제련해 만드는 고강도 합금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따라서 초기 생산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플라스틱이나 종이컵은 상대적으로 저온에서 생산되며, 초기 배출량이

낮습니다.

② 내구성과 세척 과정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오래 사용할 수 있지만, 세척 시 온수나 세제가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어 사용 단계에서도 배출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내구성이 높아 수백 번 사용 가능하므로, 초기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③ 전과정평가(LCA)의 기준

LCA(Life Cycle Assessment)는 제품의 제조 → 사용 →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평가합니다. CIRAIG 연구에 따르면,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220회 이상 사용해야 플라스틱 컵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지며, 이는 초기 생산의 높은 환경 비용을 상쇄하는 기준점입니다.

〈참고 출처〉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86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KBS 공동 LCA 실험 (2019)

텀블러와 일회용 컵의 제조·사용·세척·폐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비교한 연구입니다.

결과: 텀블러는 종이컵보다 24배, 플라스틱컵보다 13배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함

https://blog.naver.com/titiho_/223898130357

영국 환경청의 LCA 분석

재질별 텀블러의 친환경 전환점을 제시함

플라스틱 텀블러: 약 17회

세라믹 텀블러: 최대 200회

스테인리스 텀블러: 24~100회 이상 (출처마다 다름)

이처럼 출처마다 약간의 수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점은 텀블러는 반복 사용이 전제되어야 친환경적이라는 것이에요. 특히 스테인리스는 제작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사용 횟수가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 주장: 텀블러를 여러 개 사서 자주 바꾸면 오히려 환경에 해롭다.

근거: 이 현상은 환경학에서 “리바운드 효과(Rebound Effect)”라고 불리며, 학계에서 잘 알려진 개념이다. 소비자가 ‘친환경 제품’을 더 많이 사면, 전체 소비가 증가해 결국 환경에 해가 된다는 뜻이다. 환경경제학과 LCA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입증된 이론이다.

사이언스타임즈, “환경을 위해 텀블러를 쓰는 당신, ‘환경 빌런’일 수도?”, 사이언스타임즈, 2024년, <https://www.sciencetimes.co.kr/nscvrg/view/menu/253?nscvrgSn=251659>

요약 내용

많은 소비자들이 사은품이나 예쁜 디자인 때문에 여러 개의 텀블러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사용 횟수는 적고 대부분 보관하거나 버리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환경 전문가들은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최소 220회 이상 써야 종이컵보다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는 평균 45.8회만 쓰는 데 그친다. 또한 텀블러를 제조하고 폐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는 종이컵보다 24배, 플라스틱 컵보다 13배나 많다. 결국 하나의 텀블러를 오랫동안 사용할 때에만 진짜로 환경 보호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 근거

① 220회 이상 사용해야 환경에 이롭다는 주장

→ 영국 환경청(DEFRA) 발표에 따르면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220회 이상, 에코백은 131회 이상 사용해야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과정평가(LCA) 기반의 공식 분석 결과로,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다.

② 평균 사용 횟수는 45.8회에 불과

→ 민간 환경단체의 2022년 설문조사 결과에서, 국민 1인당 평균 보유 텀블러는 6개, 그중 실제 사용하는 것은 2~3개에 불과했고, 사용 횟수는 평균 45.8회로 나타남. 또한 안 쓰는 텀블러는 보관(62.5%), 폐기(33%)된다고 응답.

③ 텀블러가 종이컵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다는 주장

→ KBS와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공동 실험한 LCA 분석 결과에 따르면, 텀블러 1개를 만드는 데 나오는 온실가스는 종이컵의 24배, 플라스틱 컵의 13배에 달함. 이 수치는 텀블러의 재료(스테인리스, 실리콘) 가공과 세척, 폐기 전 과정을 포함한 총량이다.

안영준, “텀블러 사용, 편의점까지 확대”, 데일리환경, 2025년 6월 28일

<https://www.dailyt.co.kr/newsView/dlt202312220004>

요약내용

이 뉴스는 텀블러가 환경에 이롭기 위해선 하나를 오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텀블러 사용이 늘고 있지만, 여러 개를 사거나 수집용으로만 보관해 실제로는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의 연구소에 따르면, 유리 텀블러는 15회, 플라스틱은 17회, 세라믹은 39회 이상 사용해야 일회용 컵보다 친환경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는 평균 45회 이하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보관하거나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텀블러는 제조·폐기 과정에서 종이컵보다 24배, 플라스틱 컵보다 13배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결국 하나의 텀블러를 반복 사용해야 진짜 친환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기사다.

• 근거

① 재질별 최소 사용 횟수

- 미국 수명주기분석연구소(LCA) 결과에 따르면
 - 유리 텀블러: 15회 이상
 - 플라스틱: 17회 이상
 - 세라믹: 39회 이상 사용해야 환경에 이롭다.

②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 KBS와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실험에 따르면, 텀블러는 종이컵보다 24배, 플라스틱 컵보다 13배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함.

③ 실제 사용 실태

- 많은 소비자가 텀블러를 여러 개 보유하지만 평균 45회 정도만 사용, 그 중 일부는 보관(62.5%)하거나 폐기(33%)해 환경 오염을 유발함.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이나 논문 자료

1. 이다현, 『카페이용에 따른 텀블러 및 다회용컵 사용권장이 소비자 환경인식 향상에 미치는

영향』, 청운대학교, 2024년, <https://www.dbpia.co.kr/journal/detail?nodeId=T16998257>

논문 요약

이 논문은 카페에서 텀블러와 다회용컵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소비자의 환경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것이다. 연구에서는 카페 이용 시 제공되는 할인 혜택이나 정책이 실제로 소비자의 일회용컵 인식을 변화시키는지 FGI(집단 토의)와 설문조사로 분석했다. 설문 결과, 다회용컵에 대한 내적 인식(환경 보호 의식)과 외적 인식(사회적 시선 등) 모두 환경 인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위생 문제나 휴대 불편 등의 이유로 지속적 사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한계도 함께 제시되었다.

• 근거 정리

① 연구 방법

- 2023년 5~6월 FGI 토론과 설문조사 병행
- 설문 응답자 총 220명, 응답률 100%

② 핵심 결과

- 다회용컵의 내적 인식(환경에 도움 된다는 신념)과 외적 인식(주변의 시선, 혜택 등)이 → 소비자의 환경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줌

③ 의의 및 한계

- 카페 정책(할인 등)이 환경 인식 향상에 도움
- 그러나 위생·휴대성 불편으로 인해 사용 지속성에는 과제가 남음

2. 정애리 외, “텀블러 세척 시 물 온도, 세척액 및 세척 도구에 따른 오염도 감소와 교육 효과”, 『한국 학교보건학회지』, 2024년 12월, pp.191-199, <https://scienceon.kisti.re.kr/commons/util/originalView.do?cn=JAKO202405937440658&oCn=JAKO202405937440658&dbt=JAKO&journal=293827>

논문 요약

따뜻한 물과 세척제, 전용 브러시를 사용했을 때 텀블러 안의 세균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세척 방법에 따라 위생 상태가 달라지며, 위생 인식이 높아질수록 텀블러 재사용 의향도 증가했다.

• 팩트 근거

세균 관리: 올바른 세척 방법(물+세제+브러시)은 세균 제거에 효과적.

건강과 지속 가능성: 위생이 확보되어야만 텀블러를 오랫동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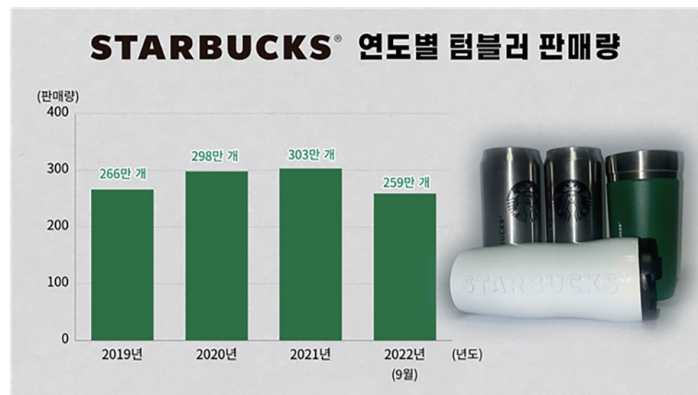
소비자 인식: 위생 교육 후 텀블러에 대한 신뢰도와 재사용 의향이 함께 높아짐.

관련 사이트 조사

1. 환경운동연합, “텀블러 열풍, 친환경과 과잉 생산의 경계”, 심예진 활동가 환경운동연합 공식 웹 사이트, 2024년 12월 12일 <https://kfem.or.kr/recycle/?bmode=view&idx=132784962>

요약

-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220회 이상, 플라스틱 텀블러는 50회 이상 사용해야 환경에 긍정적임.
- 실제 소비자는 평균 6개 보유, 평균 사용 횟수는 45.8회에 불과함.
- 과잉 생산과 반복 소비로 인해 ‘환경 리바운드 효과’ 발생 가능성이 있음.
- 스타벅스는 2019~2022년 매년 250만 개 이상 텀블러를 판매함.



2. 글로벌 시장조사 보고서, “텀블러 시장 규모 보고서 (2023~2033) Global Growth Insights <https://kfem.or.kr/recycle/?bmode=view&idx=132784962>

글로벌 텀블러 시장 현황 & 전망

2023년 시장 규모: 약 6억 6천만 달러 (USD 661.06 M)

2024년 예상 규모: 7억 1,137만 달러 (USD 711.37 M)

2032년 전망: 약 8억 2,377만 달러 (USD 823.77 M), 연평균 성장률(CAGR) 7.6%

→ 지속 가능한 제품 선호 증가, 개인 맞춤형·브랜딩 텀블러 수요 상승이 주요 요인
다른 보고서 비교:

글로벌 기준 2024년 약 33억 9천만 달러, 2033년 83억 7천만 달러, CAGR 10.6%

또 다른 예측은 2023년 30억 7천만 달러, 2030년 61억 8천만 달러, CAGR 10.6%

찾아보기

② 물어보기

직접해보기

반론이견

1. 2025년 7월 2일 오후 5시, 스타벅스 가재울점 김희정 직원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 어떤 내용을 물어보았나요?

손님들이 텀블러를 얼마나 자주 가지고 오는지

사람들이 텀블러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들은 내용 요약

김희정 직원은 “생각보다 많은 손님들이 텀블러를 지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스타벅스에서 텀블러 사용 시 음료 가격 할인 또는 ‘별’ 적립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프로모션 정책이 텀블러 사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느낀 점

혜택이 있으면 사람들이 텀블러를 더 자주 사용하게 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사용 습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을 유도하는 정책이나 보상도 큰 역할을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2. 2025년 7월 2일, 오후 5시40분 투썸플레이스 가재울점 박서우 직원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 어떤 내용을 물어보았나요?

텀블러를 가져오는 손님이 많은지
사람들이 텀블러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들은 내용 요약

투썸플레이스 직원은 “2025년 3월 26일부터 아메리카노를 포함한 음료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된 뒤, 텀블러를 가져오는 손님이 더 늘어난 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텀블러를 가져오면 300원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음료값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유도 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 느낀 점

텀블러 사용을 단순히 ‘환경을 위한 행동’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가격 할인 같은 현실적인 이유도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혜택이 큰 행동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혜택이 있으면 사람들이 텀블러를 더 자주 사용하게 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사용 습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을 유도하는 정책이나 보상도 큰 역할을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3. 2025년 7월 2일, 오후 6시 40분 가재울 ‘선휴커피’ 개인카페 사장님과 인터뷰 진행

• 어떤 내용을 물어보았나요?

손님들이 텀블러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지
텀블러 지참 시 제공되는 혜택이 있는지
앞으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 있는지

• 들은 내용 요약

사장님은 “텀블러를 가져오는 손님도 있지만, 거의 없고 따로 제공되는 혜택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가게 자체가 저렴한 가격으로 커피를 제공하고 있어, 추가로 할인 혜택을 드리긴 어렵다”고 하였고, “앞으로도 텀블러를 가져오는 손님에게

별도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이셨습니다.

• 느낀 점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텀블러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혜택이 많지만, 작은 개인 매장에서는 가격 구조나 운영 여건상 그러한 혜택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텀블러 사용을 꾸준히 실천하려면 혜택뿐 아니라 개인의 자발적인 환경 의식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4. 2025년 7월 2일,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고 있던 김태은 손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손님은 텀블러 없이 매장컵으로 음료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 어떤 내용을 물어보았나요?

평소 텀블러를 사용하는지
사용한다면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사용에 있어 불편한 점은 없는지

• 들은 내용 요약

해당 손님은 텀블러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었습니다.

- 외출 시 갑자기 커피를 마시게 되는 경우, 미리 가방이나 차에 챙겨두지 않으면 텀블러를 쓸 수 없다.

- 무겁고 귀찮아서 들고 다니기 힘들다.

스타벅스에서 별이나 할인 혜택이 있어도, 그 혜택을 받기 위해 일부러 텀블러를 챙기는 않는다.

→ 주로 커피 마시기로 약속된 외출일에만 텀블러를 챙겨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 느낀 점

텀블러 사용은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습관과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또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장치나 보관의 편리함이 보완된다면, 텀블러 사용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안상혁 담당자 인터뷰 2025년 7월 3일 전화 인터뷰

Q1. 텀블러는 진짜 친환경인가요?

-> 텀블러는 일회용 컵보다 제조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환경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텀블러는 약 17회 이상, 세라믹 텀블러는 약 39회 이상 사용해야 일회용 컵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집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 번씩 꾸준히 사용하면 환경에 도움이 됩니다.

Q2. 환경부에서 텀블러 사용을 늘리기 위해 하고 있는 캠페인이나 정책이 있을까요?

->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페에서 텀블러를 가져오면 음료를 할인해주는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리필스테이션 설치를 확대해 사람들이 텀블러를 더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규제 강화와 함께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는 홍보 활동도 진행 중입니다.

Q3. 텀블러 말고도 일회용 컵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텀블러 외에도 일회용 컵을 줄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다회용 컵 대여 서비스나 리유저블 컵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부 카페에서는 고객이 다회용 컵을 빌려 쓰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이컵 대신 생분해성 소재로 만든 컵을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Q4. 텀블러도 만드는 데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데, 그래도 일회용 컵보다 나은가요?

-> 맞습니다. 텀블러는 제조 과정에서 일회용 컵보다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텀블러는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환경에 더 이롭습니다. 예를 들어, 종이컵은 한 번 쓰고 버려지지만, 텀블러는 수십 번, 수백 번 사용할 수 있어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텀블러를 오래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Q5. 환경부가 생각하는 '친환경 소비'란 어떤 모습인가요?

-> 환경부는 '친환경 소비'를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절약하고 재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앞으로는 텀블러처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재활용이 쉬운 소재를 사용하는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느낀 점

이번 인터뷰를 통해 저는 “텀블러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친환경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예쁜 텀블러를 사는 것보다, 한 개의 텀블러를 오래, 자주 사용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텀블러 외에도 다회용 컵 대여 시스템, 생분해성 소재 활용, 리필스테이션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환경 정책은 나오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같은 학생들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걸 알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환경을 위해서” 텀블러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물건을 소중히 오래 쓰는 습관이 진짜 친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찾아보기

물어보기

③ 직접해보기

반론이견

직접 실험 해보기

텀블러 사용 실험 및 관찰

저희는 일주일 동안 텀블러를 직접 사용해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동안 하루에 몇 번 사용했는지, 설거지에 사용된 물의 양과 시간,

그리고 텀블러 사용 중 느낀 불편한 점과 좋은 점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텀블러 대신 종이컵을 썼다면 일주일 동안 몇 개의 종이컵이 필요했는지 계산하여

텀블러 1개가 줄일 수 있는 종이컵 사용량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추가 조사: 실제 학교 내 텀블러 사용률 관찰

우리는 학교 안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텀블러를 사용하는지도 확인해보았습니다.

텀블러에 대한 인식도 조사

우리는 텀블러가 정말 친환경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친구, 가족, 선생님 등 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

① 텀블러 사용 실험 결과

저희는 일주일 동안 텀블러를 직접 사용해보며, 일회용 컵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2번 사용했을 경우, 일주일 동안 종이컵 14개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두 번만 사용하는 정도로는 텀블러가 진짜 친환경이 되기엔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설거지에 평균 2~3분, 물은 약 500~700ml 정도가 들었으며,

장점: 종이컵을 쓰지 않아 죄책감이 덜하다

단점: 무게가 무겁고, 세척이 귀찮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텀블러가 진짜 친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용이 아니라 '자주, 오래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② 학교 내 관찰 조사

하루 동안 관찰한 결과, 각 반 학생들의 텀블러 사용률은 아래와 같았습니다.(대략)

학교 / 학년반	전체인원	텀블러 지참 인원	사용률
A중학교 1학년 6반	27명	27명	27명
B중학교 1학년 7반	28명	25명	약 89%
C중학교 1학년 3반	25명	10명	약 40%

→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텀블러를 지참하고 있었지만, 학교와 학급마다 차이가 있었고, 매일 사용하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보다 꾸준한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 달라질 수 있는 수치이며, 지속적인 사용 여부는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③ 주요 설문 문항 및 결과 요약

1. "텀블러는 친환경이다"

매우 그렇다 - 87명

어느 정도 그렇다 - 13명

→ 거의 모든 응답자가 텀블러를 친환경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2. "몇 번 이상 사용해야 종이컵보다 환경에 더 이롭다고 생각하나요?"

20번 이상 - 27명

잘 모르겠다 - 61명

그 외 (5~10번) - 12명

→ 대부분이 '몇 번 이상 써야 친환경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3.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를 자주 사용하나요?"

거의 매일 - 15명

가끔 사용 - 72명

거의 사용하지 않음 - 13명

→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소수였고, '가끔' 사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4. "텀블러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있다 - 51명

없다 - 37명

사용해본 적 없음 - 12명

→ 절반 이상이 무게나 세척 등의 불편함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결론 : 많은 사람들이 '텀블러 = 친환경'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정확한 기준이나 사용 조건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막연한 믿음보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상 반론 1

“텀블러는 만들 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니까, 애초에 안 쓰는 게 더 낫지 않나요?”

(텀블러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주장)

재반박 -> 맞습니다. 텀블러는 제조할 때 종이컵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두 번 사용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220회 이상, 플라스틱은 17~50회 이상 사용하면 오히려 종이컵보다 더 환경에 이롭다는 것이 LCA(전과정평가) 연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핵심이며, 오래 반복해서 사용한다면 텀블러는 충분히 친환경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상 반론 2

“텀블러는 무겁고 불편해서 현실적으로 매일 들고 다니기 어렵다.”

(사용 실천의 어려움 강조)

재반박 -> 실제로 저희도 직접 텀블러를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은 개인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세척기나 보관함, 음료 할인 혜택 등 실천을 돕는 환경이 갖춰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가볍고 접을 수 있는 휴대용 텀블러도 많이 개발되고 있어, 기술적·환경적 변화도 함께 필요합니다.

예상 반론 3

“텀블러를 여러 개 사는 게 오히려 더 환경에 나쁜 거 아닌가요?”

(친환경 소비가 오히려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

재반박 -> 맞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조사한 결과, 소비자 1명이 평균 6개의 텀블러를 가지고 있지만, 자주 사용하는 것은 2~3개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과잉소비’는 진짜 친환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주, 오래, 하나만” 사용하는 습관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물건보다 중요한 건 습관이며, 물건 하나를 오래 쓰는 실천이 진짜 친환경입니다.

결론 작성하기

저희는 “텀블러는 정말 환경에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팩트체크를 위해, 뉴스와 논문, 현장 인터뷰, 직접 실험과 설문조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텀블러가 환경에 이로운지에 대한 정답은 단순히 ‘그렇다’ 혹은 ‘아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텀블러는 친환경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전과정평가(LCA) 연구에 따르면, 텀블러는 제조, 유통, 사용,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종이컵보다 24배, 플라스틱컵보다 13배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이는 텀블러가 환경에 이롭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기적 사용만으로는 오히려 환경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220회 이상, 플라스틱 텀블러는 17~50회 이상 반복 사용해야 일회용 컵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지며, 이 수치를 넘었을 때 비로소 ‘진짜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인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 환경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보유한 텀블러는 평균 6개, 이 중 실제로 사용하는 텀블러는 2~3개에 불과했으며, 평균 사용 횟수는 45.8회였습니다. 즉, 상당수 소비자들 사용 기준을 채우지 못한 채 ‘친환경’이라는 이미지에만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2. 단순한 이미지가 아닌, ‘정보 기반 실천’이 필요하다

저희는 총 100명을 대상으로 텀블러 인식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중 87명이 “텀블러는 친환경이다”고 응답했지만, ‘몇 번 이상 사용해야 친환경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61명이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텀블러가 친환경이라는 믿음은 매우 높지만, 그 근거는 대부분 정확하지 않거나 막연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텀블러를 자주 사용하는가?”라는 질문에서는 72명이 “가끔만 사용한다”고 답했으며,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이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51명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텀블러의 친환경성을 알고는 있지만, 실천은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며, 불편함이 실천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3. 실험과 인터뷰에서 드러난 ‘현실적 이유들’

저희는 직접 텀블러를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는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하루 2회 사용 기준으로 종이컵 14개 절약 효과를 확인했지만, 세척에는 하루 평균 2~3분, 물 500~700mL 정도가 소요되었고, ‘세척의 번거로움’, ‘무게 부담’ 등 실질적인 불편함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즉, 친환경을 위한 실천은 편리함과 싸움이기도 하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한편,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매장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과 인터뷰한 결과, 텀블러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할인, 별 적립 등)이 사용률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한 소비자와의 인터뷰에선, “미리 챙기지 않으면 쓸 수 없고, 무겁고 귀찮다”며 텀블러 사용이 ‘마음만으로는 어려운 행동’이라는 현실적 제약을 말해주었습니다.

4. 결론: 텀블러는 ‘습관과 구조’가 함께할 때 진짜 친환경

결론적으로, 텀블러는 올바른 방법으로 충분히 오래 사용할 때에만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친환경’이라는 이미지를 믿고 정확한 기준 없이 사용하거나, 오히려 여러 개를 소비하는 경우도 있어 ‘리바운드 효과’(친환경 소비가 오히려 환경오염으로 이어지는 현상)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실천이 오래가기 어렵기 때문에, 텀블러를 쓰면 할인해 주는 제도나, 세척할 수 있는 장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처럼 사람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만난 한 개인카페 사장님은 “가격을 낮게 책정하다 보니 할인 혜택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대형 프랜차이즈와 달리 작은 매장은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 모두에게 동일한 실천을 요구하기보다 다양한 현실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결방안 제안

1. “자주, 오래, 하나만” 실천 캠페인 전개

- 텀블러 하나를 200회 이상 사용하는 습관을 권장합니다.
- 사용 횟수를 기록할 수 있는 스티커나 인증 뱃지 등을 통해 실천을 재미있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2. 정확한 정보 제공 교육 강화

- 텀블러가 ‘몇 회 이상 사용해야 친환경이 되는지’, ‘사용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설명한 포스터나 리플렛을 학교나 카페에 비치합니다.
- 뉴스나 논문에서 나온 정확한 근거를 그림이나 그래프로 시각화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초·중등 교육 과정에 ‘환경을 위한 소비’나 ‘리바운드 효과’ 등을 다루는 활동을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텀블러 사용을 도와주는 정책과 환경 마련

- 음료 할인뿐만 아니라, 사용 인증 리워드나 텀블러 공유·보관함을 도입합니다.
- 세척을 쉽게 할 수 있는 공용 세척기나, 가볍고 접을 수 있는 텀블러 제품 개발도 함께 필요합니다.

텀블러 하나로 세상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텀블러 하나를 자주, 오래 사용하는 습관은 지구를 조금 더 푸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팩트체크를 통해 우리는, 환경을 위한 실천이 단순한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며 정확한 정보와 도와주는 구조가 함께할 때 비로소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진짜 친환경은 몇 번부터?" - 텀블러, 알고 쓰자!

콘텐츠 소개

🎧 기획의도

요즘 많은 사람들이 “텀블러는 친환경”이라는 말만 듣고 무조건 사용하거나 여러 개를 사지만, 실제로 얼마나 자주, 어떻게 써야 진짜 친환경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팩트체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중·고등학생들도 재미있게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코믹 웹툰 형식’을 택했습니다.

☰ 상세설명

주인공은 새로 산 텀블러를 SNS에 자랑하며 환경 지킴이를 자처하지만, 친구 @@이 “몇 번 써야 친환경인지 알아?”라고 묻자 당황합니다. 검색 결과 220회 이상 사용해야 진짜 친환경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꿈속에서 일회용컵 요괴와 텀블러 귀신까지 만나면서, 텀블러는 단순히 사는 것보다 자주, 오래, 하나만 쓰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마지막에는 친구들과 함께 “자주, 오래, 하나만” 캠페인을 벌이며 학교에 포스터를 붙이고, 학생들의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팩트체크 핵심: “텀블러는 친환경일 수 있지만, 정확한 기준과 실천 방법이 필요하다.”



불고기팀 웹툰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저희는 웹툰 콘텐츠 「진짜 친환경은 몇 번부터?」를 활용해 학교 안팎에서 사람들이 텀블러 사용에 대해 정확한 정보와 습관의 중요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1. 첫째 활동: QR코드 포스터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홍보

저희는 웹툰을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QR코드가 포함된 포스터를 직접 제작하여 학교 교실, 가재울청소년센터, 아파트 단지 내외부, 그리고 카페 매장에 부착했습니다. 포스터 문구는 “텀블러는 진짜 친환경인가요?”로, 웹툰에 바로 접속 가능한 QR코드를 포함해 누구나 한 번의 스캔으로 웹툰에 접속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홍보 장소

- 학교 교실과 복도
친구들과 선배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에 부착하여 자연스럽게 노출 효과를 높였습니다.
- 가재울청소년센터
또래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게시하여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카페 (우리단지 카페)
주민들이 커피를 마시거나 대화를 나누는 공간에 비치해 어른들도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단지 내 티가든(휴식 공간)
산책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분들이 QR코드를 스캔해볼 수 있도록 포스터를 부착했습니다.
- 단지 맞은편 메가커피 매장
점주님의 동의를 받고, 실제 커피 소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포스터를 비치하여 실천 유도를 목표로 했습니다.

활용 이유

QR코드는 모바일로 손쉽게 접속이 가능하고, 누구나 한 번의 클릭으로 콘텐츠에 도달할

수 있어 학교, 청소년 공간, 지역 커뮤니티 등 다양한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2. 두 번째 활동: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확산

두 번째는 SNS 플랫폼인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홍보였습니다.

웹툰 내용을 활용해 카드뉴스 형식으로 이미지 콘텐츠를 만들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했습니다. “#자주오래하나만 #진짜친환경은몇번부터 #텀블러팩트체크” 등 해시태그를 활용해 캠페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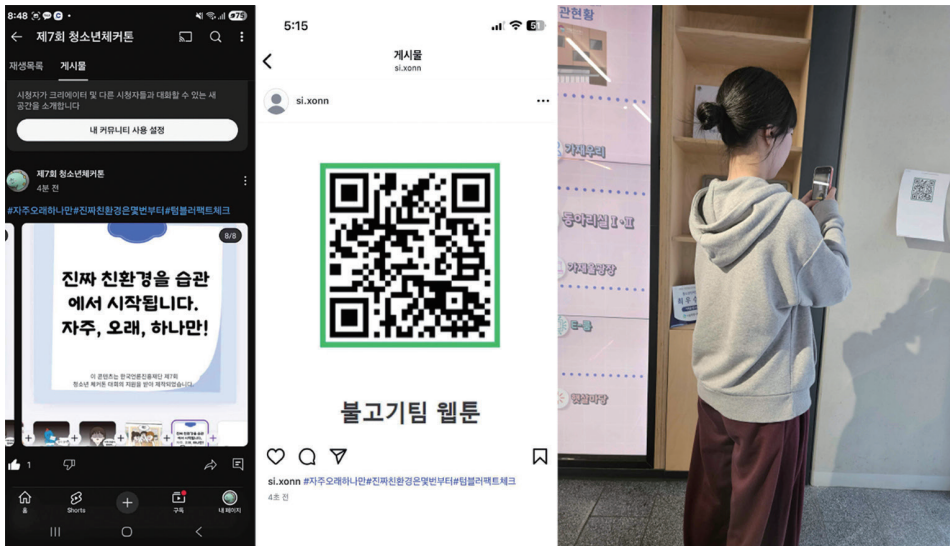
학생들과 일반 사용자들이 단 댓글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홍보 반응을 기록했고, 피드백을 콘텐츠 개선에 활용했습니다.

활용 이유

인스타그램은 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이라, 빠르고 넓은 확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텀블러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무조건 친환경이다)에 맞서 팩트체크 기반 웹툰 콘텐츠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온라인에서 동시에 캠페인을 전개하며 사람들의 실천을 도왔습니다. ‘친환경 소비는 정확한 정보와 꾸준한 실천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참여소감

김서희

이번 체커톤 활동은 제가 처음 팀장을 맡아 진행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주제를 정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일부터 팀원들과 함께 역할을 나누고 조사·실험·콘텐츠 제작까지 전 과정을 이끄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과연 제대로 된 팩트체크를 할 수 있을까?” 걱정도 있었지만, 팀원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고, 서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인터뷰를 직접 타고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람들의 생각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체감할 수 있었던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모든 결과물이 완성됐을 때의 뿌듯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시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꼭 한 번 더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해 준 우리 팀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손채영

처음에는 “청소년 체커톤? 뭔가 어려울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었고, 중학생으로 참여하는 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체커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과제의 깊이나 팀워크 면에서 훨씬 더 진지하고 체계적으로 해야 해서 부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활동을 시작하니 팀원들과의 호흡이 너무 잘 맞았고, 뉴스나 논문을 읽고, 인터뷰하고, 직접 실험을 해보는 과정이 점점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팀블러가 친환경이라는 믿음’이 실제로는 어떻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 조사하면서, 저 스스로도 환경에 대해 훨씬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웹툰 콘텐츠를 제작하고 QR코드로 캠페인을 펼치며 친구들의 반응을 보는 것도 재밌었고, ‘단순한 믿음보다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진짜로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팀블러를 더 자주, 오래 사용하려고 해요!

김시은

평소 환경 주제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과연 내가 제대로 팩트체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과 함께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고, 직접 실험해보고, 결과를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 과정이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PPT를 만들고 웹툰 내용을 구상할 때는 우리가 모은 정보를 어떻게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인터뷰하면서는 용기를 내야 했고, 정리할 때는 꼼꼼함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잘 못하던 것들도 많이 훈련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이 “팀블러는 친환경”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몇 번 써야 친환경인지 잘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환경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세양

처음에는 팩트체크가 단순히 뉴스나 자료를 검색해서 ‘맞다 / 틀리다’를 찾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체커톤 활동을 통해 팩트체크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료 조사도 중요했지만, 현장 인터뷰와 설문조사, 직접 실험, 그리고 콘텐츠 기획까지 모든 과정이 팀워크로 이루어졌고, 그 안에는 각자의 노력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 속에서 밖에 나가 설문 인터뷰를 진행했던 경험은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았지만, 오히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되었습니다.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팀원들과 함께 결과물을 완성했을 때 느낀 성취감은 매우 컸습니다. 다음에 또 체커톤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새로운 팀을 꾸려 더 멋진 결과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체커톤은 정말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